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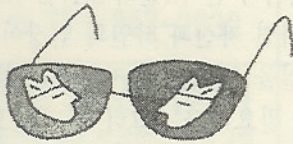
<http://www.103skcc.org>

부활 제 3주일

제28권 19호 (가해) 2008·4·6

[묵상]

왼 눈을 감으니 오른쪽이 보입니다.
오른 눈을 감으니 왼쪽이 보입니다.



아쉬워...
두 눈 모두 떴습니다.

구상렬 허상 바오로 · 만화가

사람의 눈이 정면을 향할 때
볼 수 있는 시각(visual angle)은
모두 200도에 달한다.
이 중에서 정면 120도는
오른쪽과 왼쪽 눈이 공유하는 시각이다.
왼쪽 눈을 감으면 오른쪽 편 100도만 보이고,
오른쪽 눈을 감으면 왼쪽 편 100도만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한쪽 눈만으로는 물체의 높이와 넓이뿐 아니라
거리와 깊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한 두 눈으로
사물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도 문제는 있다.
사물의 정면을 보는 눈이 그 뒷면을 볼 수 없고
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게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최연이, 고준희 제임스
	(생)민영준 마르코, 조지 가보라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이진향 아네스
주 일 낮 미사	(연)김종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준주 최복덕 마리아, 황만근 베드로, 이인순, 이옥순 마리아 정요왕, 장석규 베드로, 양갑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생)김별 스텔라, 김나영 마리아, 최미예 카나리나와 앤과 티나, 이종민 요셉,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최경숙 수산나, 이병권 파비아노와 도순 요안나 가정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근모 마르코, 채수환 마테오, 권진열 피데스 가정 이석제 베드로 가정, 홍관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2,14.22-33
화답송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소서. 〈전례성가 71, 부활 제3주일 A해 참조〉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오이다. 주님께 아뢰오니, 당신께서는 저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의 기업, 제 잔의 몫이시니, 저의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깨달음을 제게 주신 주님을 기리오니, 밤에도 제 마음이 저를 일깨우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제 앞에 모시오니, 제 오른편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기에 제 마음 즐겁고, 영혼은 봄날 육신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제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두시리이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쁨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1,17-21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루카(Luke) 24,13-35
영성체송	빵을 떼실 때에,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도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6	166
봉헌	268	234,264
성체	402	287,302
파견	170	170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3) 성령의 9가지 열매 : 갈라 5,22-23

⑧ **온유 (gentleness)** : 이 열매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힘이다. 이는 자제된 힘으로서 지나치게 따지려 들지 않으며, 자신에게는 더없이 강하지만 약자나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힘을 말한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태 5,5)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 11,29)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갈라 6,1; 2티모 2,25) → 온유의 열매를 성장시키려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서로 다르며, 서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있는 강한 힘을 자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지혜 2,19) “온유한 말, 온유한 이야기, 온유한 충고는 모두의 마음을 얻습니다.”(돈 보스코 성인)

⑨ **절제 (self-control)** : 이 열매는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 욕망과 욕정, 욕욕과 욕심을 눌러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는 자제력을 말한다. 이는 영혼과 육신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절제하는 권위요 능력이다. 무절제한 감정은 온갖 시기, 질투,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탐욕 등을 초래하고 무절제한 욕의 행실은 불륜, 부정, 방탕, 과음, 과식, 과로 등을 초래하여 영혼과 육신을 망친다. 절제가 없는 생활에는 사탄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1코린 7,5) → 절제의 열매를 성장시키려면 고신 극기의 생활을 하고, 자신의 무의식까지도 정화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며, 특히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뜯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집회 19,6)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집회 26,15)

성부와 성자에게서 파견되어 오신 성령께서는 이토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한 봉사와 더불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도록 다양한 은총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앙의 활력을 주시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며,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해 보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적극적이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계속 / CBCK + 박상대 신부 제공)

충격적인 만남

희망의 보루였던 스승께서 그토록 처참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시다니! 스승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제자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극도의 실망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서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후회도 없는 그야말로 자포자기의 상태, 그것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희망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지난 추억들을 하나하나 지워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승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버린 두 제자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 주시기 위해 그들을 만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렇게 같은 길이었지만 목적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두 제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깊은 시름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전혀 기대치 않은 순간에 그렇게 부활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주실 때에야 제자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분을 만났지만 그 순간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루카 24.30-31). 제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의 쓰디쓴 맛을 보게 하신 스승 예수님과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십니다.

두 제자는 그야말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만나는 충격적인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체험의 첫 순간은 이렇게 생각과 관념,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시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심으로써,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범벅된 자기중심적인 삶을 청산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시선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십니다. 따스한 봄볕을 피부로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듯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열린미사 (토요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테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유우상 도미니코	제1독서자	최종민 토마스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박혜경 레나타	유성혜 도미니카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주일)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백삼위 골프회 4월 정기토너먼트

- 4월12일(토), 롱비치 리크리에이션센터 골프코스
5000 E. Anaheim St. Long Beach
- 티오프 : 오전 11시30분
- 문의 : 서성용 베드로 회장 ☎ 310-686-3587

◆ 남가주청년연합회 아나뎀 열린미사

- 일시 : 4월12일(토) 오후 6시30분부터 찬양 후
오후 7시부터 미사(특전미사) 시작.

◆ 양업회 춘계 축구시합

- 4월13일(주일) 미사후 오후 1시
- 각 단체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재용 안드레아 ☎ 949-502-1213

◆ 어르신 성서 공부

- 일시 : 4월13일(주일) 미사후 오후 1시30분, 강당
- 준비물 : 어르신 성서

◆ 홈리스 피플 봉사

- 4월13일(주일) 오후 4시, 롱비치 무숙자 쉼터
- 이발봉사와 음식봉사
- 문의 : 박홍룡 요셉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 310-283-5879

◆ 요셉회/안나회 부활맞이 온천관광

- 일시 : 4월15일(화)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출발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 신청 바람, 55명 정원

- 회비 : \$15(교우), \$25(외부인)
- 신청 : 이카타리나 회장 ☎ 310-518-1734
오진자 마리아 총무 ☎ 310-499-8048
- *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 한국어 혼인전 강좌 신청

- 4월19일(토) 오전 8시, 성 마태오 성당
- 수강료 : \$50, ● 신청마감 : 4월12일(☎ 818-951-0879)
- *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가톨릭방송 기금마련 폐전자제품 수거

- 백삼위 본당 수거일 : 4월27일(주일)
- 장소 : 리사이클링 통 옆(본당 남서쪽 코너)
- 수거 가능 품목 : 휴대폰, 컴퓨터(모니터 포함 관련품목)
전화기, 전선줄, TV,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에어컨, 시계
냉,온풍기, 콤프레서
- 불가능품목 : 냉장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등
- 의문나는 제품 문의 : ☎ 909-418-0306

◆ 혼인갱신식 신청

-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부가 상호 존경과 사랑을 하느님께 다시금 서약하기 위한 혼인갱신식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5월11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대상 : 전 신자(외떡교우 포함)
 - 신청 : 4월27일(주일)까지 사무실

◆ 성모회가 김치병을 모읍니다.

- 성모회표 김치 판매를 앞두고 빈 김치병을 모읍니다. 집에 사용하지 않는 병이 있으면 많이들 가져다 주세요.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6일 (주일) : 사회복지분과 (스파게티 맛볼 \$3)
- 4월13일(주일) : P.V. 3반 (갈비우거지탕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구본엽	구자운	김관기	김대우
	김영미	김용상	김일선	김찬구	김철수	김태호
	김현숙	민경근	박동수	박선희	박영룡	박재철
	박종열	박창민	박호석	박희자	방세훈	엄세종
	오일순	우영주	유선식	윤석구	윤선희	윤희동
	이기성	이병우	이상규	이연행	이영숙	정기은
	정상봉	정순석	조영희	조화숙	채양석	최원석
	최희태	한소옥	한혁수	홍석철	홍주희	
	크리스리					
	합계 : \$4,570					
미사헌금 : \$2,975						

성전헌금	강숙경	구본엽	구자운	김관기	김대우	김영미
	김용상	김일선	김찬구	김철수	김태호	김현숙
	민경근	박동수	박선희	박영룡	박재철	박종열
	박창민	박희자	방세훈	엄세종	우영주	유선식
	윤희동	이기성	이병우	이상규	정상봉	정순석
	조영희	조화숙	채양석	최원석	최희태	한혁수
	홍석철	홍주희				
합계 : \$3,440						
감사헌금: 이나미, 채양석						

이 주간의 축일 (4월6일~12일)

◎ 축하합니다. ◎

- 6일 : 마르첼리노 순교자, 엘스타노 주교, 디모테오 순교자, 아만도 증거자, 우르바노 원장
- 7일 : 요한 사제 증거자, 헤제시오 증거자, 젤투르다 동정녀, 술리나 동정녀, 빌리코 주교, 제오르지오 주교
- 8일 : 페르페루오 주교, 막시마 순교자, 율리아 동정녀, 윌터 원장, 아만시오 주교
- 9일 : 프로코로 주교 순교자, 가우체리오 원장, 테오도로 순교 순교자, 헤다 순교자
- 10일 : 마카리오 주교 증거자, 폴베르트 주교, 베다 수도자, 에제키엘 예언자, 바테모 원장
- 11일 : 스타니슬라오 주교 순교자, 켄마 동정녀, 고테베르타 동정녀, 필립보 주교, 아제리코 원장
- 12일 : 율리오 1세 교황, 제노 주교 순교자, 사바 순교자, 다미아노 주교, 콘스탄티노 주교

남가주 소식

◆ 성 토마스 성당 청년회 찬양의 밤(Let God Arise)

- 4월18일(금) 오후 7시30분
-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청년회 밴드의 열린 찬양의 시간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호회 주최 '뮤직 캠프'

- 성음악에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4월19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장소 : 윤용선 바울로 신부(천주교 부산교구 성음악 감독)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참가비 : \$40(중/석식 제공)
 - 문의 : 지희자 김경숙 클라라 ☎ 909-618-7575

◆ 남가주 꾸리아 협의회 21차 정기모임

- 4월20일(주일) 오후 4시, LA 성 바실회관 1층 회의실
- * 문의 : 김환일 베르나르도 회장 ☎ 213-273-6728

◆ 제 5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 일시 : 4월25일(금) 2:30 pm~27일(주일) 5:00 pm
- 대상 : 일반인 ● 피정비 : \$100
- 장소 : 데미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 준비물 : 성경, 성가책, 세면도구, 침낭, 편안한 신발

◆ 제11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대회

- 4월29일(화) 오전 11시 등록, 티오프 낮 12시(샷건)
- Westridge 골프코스(1400 S. La Habra Hills Dr.)
- 회비 : \$120(미주 가톨릭 방송 기금 모금)
- 주관 : 남가주평신도협의회 ☎ 213-272-7453 김춘식 회장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펠드 트립 518-3041 4/19(토) 오전10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유선식 필립보 326-2184 4/12(토) 오후 7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4/11(금) 오후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순희 모니카 850-6253 4/11(토)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장정진 베로니카 328-4070 4/14(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씨니 클라라 326-9953 3/5(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4	이정훈 안셀모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진열 피데스 516-7472 4/11(금) 오후 7시, 성당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서창호 바오로 257-1784 4/12(토) 오후7시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1(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문중 바오로 541-7860 4/11(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윤클라라 377-2806 4/8(화) 오전 10시30분

■ Tolerance (тол레랑스)

6.25 때, 함경도 사람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필요한 게 있어 시장에 가보니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띄어 “이것이 무시기?”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물었다. 부산 사람이었던 주인이 되물었다. “무시기가 뭐꼬?” 그러자 다시 함경도 사람이 되물었다. “뭐꼬가 무시기?” 그런식으로 계속 “뭐꼬가 무시기?” “무시기가 뭐꼬?”라고 서로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면서 한 동안 설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잘되게 하려는 의도도 같다. 스타일과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 소리를 조금만 낮추면 협력가능성은 조금씩 커진다. 승리자에게 꼭 있는 것은 협력 정신이다. 똑똑함보다 협력함이 중요하다. 다 똑똑하면 다 어려워진다. 똑똑해서 흠어지면 죽고 부족해서 뭉치면 산다. 참된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없을 때 번영한다.

한 재수생 학원에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한다. “뭉치면 죽는다!” 재수생들은 뭉치면 죽지만 보통은 뭉쳐야 산다. 어려울 때는 뭉치기를 해야 할 때다.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 얻는 행복은 없다.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자기 소리를 낮추면 전체 소망은 커진다.

자동차의 좌우측 바퀴 중에 한쪽 바퀴가 지나치게 크면 그 자동차는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 바퀴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눌 때 승리는 성큼 다가온다.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저 사람 속을 도저히 알 수 없어!” 사람은 서로 모르는 것이 많다.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남을 잘 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 온 부부도 서로를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다. 개와 고양이가 양숙인 이유는 서로 모르기 때문이다.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올리고 기분 나쁘면 꼬리를 내린다.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 나쁘면 꼬리를 올린다. 것처럼 사인(sign)이 맞지 않아 오해가 생긴다.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반가워 꼬리를 들고 흔들면 고양이가 오해한다. “저 개자식이! 왜 나만 보면 신경질이야!” 그래서 고양이가 인상을 쓰니까 이제는 개가 오해한다. “저 고양이자식은 성격파야! 만날 때마다 저렇게 뽀뽀해.”

사인이 다르면 싸움이 생긴다. 모든 사람은 성격도다르고, 사용하는 body language도 다르다. 것처럼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톨레랑스(관용)라고 한다. 관용을 통해 남의 행동양식을 존중할 때 나의 행동양식도 존중받는다. ‘예절바른 것’은 인사 잘하고 교양 있는 것도 포함하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는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좀 바뀐!”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예의 바른 태도는 “그는 나와 달라. 한번 이해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 속에서 차분히 서로의 단점을 고쳐나갈 수 있다. 다른 존재끼리 서로 관용할 때 대화가 열리고 갈등과 상처가 아물게 된다. ◆글/이한규

■ 경마장의 말

아내: “당신 바지 주머니에서 ‘메리제인’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가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뭐죠?”

남편: “아, 그거? 왜 내가 어제 경마장에 갔었잖아? 거기서 내가 돈을 걸었던 말 이름이 ‘메리제인’이었어.”

아내: “그렇군요. 근데 오늘 오후에 그 말한테서 전화가 왔던데요?”

남편: (허적!)

■ 말, 말, 말

“말에서 지혜가, 말씨에서 교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네 무지를 부끄러워하여라.”

(집회서 4,24-25)